



올 시즌 프로야구 개막을 5일 앞둔 2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8개 구단 감독과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렸다. /연합뉴스

# “650만 관중의 중심 우리가 될 것”

## ■ 프로야구 미디어데이...8개구단 감독 출사표

디펜딩 챔피언인 KIA의 조범현 감독을 비롯한 6개 구단 사령탑이 이번 시즌 목표를 ‘우승’으로 내걸었다.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받는 넥센과 한화는 4강 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8개 구단 감독들은 22일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0 프로야구 그랜드오픈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정규 시즌에 임하는 각오와 함께 출사표를 밝혔다.

조범현 감독은 “시범경기를 치러보니 SK 두산 삼성 롯데 등 4팀의 전력이 좋아보인다”고 KIA를 제외한 4강 후보를 꼽고 나서 “하지만 우승은 KIA가 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올해 프로야구가 목표인 650만 관중을 동원하면 좋겠는데 KIA가 중심이 되기를 바란다”며 “KIA는 전년도 챔피언으로서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한국 야구의 위상을 드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시리즈 3연패에 실패한 김성근 SK 감독도 “SK는

(코나미 컵을 치른) 2007~2008년에 이어 작년에는 KIA에 패하는 등 해마다 마지막 경기에서 졌다”면서 “올해는 마지막 경기에서 꼭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반드시 정상에 설 것”이라며 우승에 대한 열원을 불태웠다. 그러면서 “시범경기를 해 보니까 다들 강해서 4강을 꼽기 어렵다”며 “초반에 어떤 팀이 흐름을 타느냐에 따라 4강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경문 두산 감독은 “KIA의 우승 장면을 보면서 부러웠고 두산 팬에게 미안했다. 올해는 꼭 우승하고 싶다.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간 한화와 넥센을 제외한 6팀이 큰 차이 없이 경기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2년 연속 가을잔치에서 초대받았던 제리 로이스터 롯데 감독은 “이번이 한국에서 3번째 시즌인데 부산으로 우승을 가져 왔으면 좋겠다”며 “각 구단의 전력이 전체적으로 강해졌는데 이대호, 조정훈 등이 제 역할을 해 주면 우리 팀도 관망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지난 시즌 13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한 삼성의 선동열 감독은 “작년에는 부상 선수가 많아서 힘들었는데 올해는 부상 선수가 장원삼 선수가 합류해 팀이 강해졌다”며 “올해는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할 것이다. 하지만 우승 팀은 아마 두산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시즌을 마치고 장원삼, 이택근, 이현승 등 주축 선수들이 빠져나간 넥센의 김시진 감독은 “스프링캠프에서 여러 선수가 빠져나간 선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했다. 지금은 빠진 선수의 빈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넥센과 한화가 2약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는 “야구는 해박하다. 꼴찌를 하거나 7위를 하려고 야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전망이 잘못됐다. 그것을 연말에 능력으로 보여줄 것이다. 4강에는 우리 팀이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 CMB광주방송, KIA 흥경기 생중계


CMB광주방송은 27일 개막하는 2010 프로야구 시즌 중 KIA 타이거즈가 광주 홈구장에서 펼쳐는 전경기를 생중계한다고 22일 밝혔다. CMB 광주방송은 김성한 전 KIA 타이거즈 감독 및 최해식 전 코치를 해설위원으로 위촉했다. /연합뉴스


지난 시즌 후 취임한 박종훈 LG 감독은 “프로야구가 목표 관중을 동원하려면 LG가 선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한다”며 “시즌이 끝나고 포스트시즌이 시작될 때 LG가 중심에 서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끝까지 한화의 한대화 감독은 솔직한 답변으로 웃음을 유도하며 박수를 받았다. “지난 시즌은 최악의 해였다. 올해는 더는 내려갈 곳도 없다. 지금도 상황은 좋지 않지만 시즌 때 다른 감독들을 귀찮게 할 것이다. 계속 귀찮게 하다 보면 좋은 성적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각 감독은 이번 시즌 팀 전력의 중심이 될 ‘키 플레이어’도 꼽았다. 조범현 감독은 투수 전태현, 야수 이종환을 추천했고, 김성근 감독은 부상에서 돌아온 김광현, 박경완과 엄정욱 등 3명을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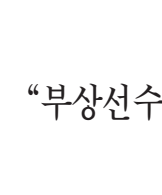
김경문 감독은 “이성열과 유재웅에게 기대한다”고 했고, 선동열 감독은 이영욱과 진갑용을 꼽으며 “진갑용이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80경기 이상 뛰어 주면 우리 팀이 성적을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수성, 강윤구(이상 넥센), 조인성(LG), 라이언 사도스키(롯데)도 키 플레이어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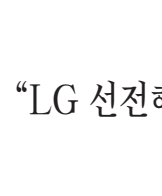
**“반드시 2연패...위상 높일 것”**  

 <KIA 조범현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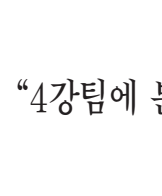
**“마지막 경기서 꼭 이기겠다”**  

 <SK 김성근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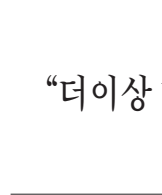
**“우승으로 팬들에 보답”**  

 <두산 김경문 감독>

**“올해는 우승을 부산으로”**  

 <롯데 로이스터 감독>

**“부상선수 합류...우승 자신”**  

 <삼성 선동열 감독>

**“LG 선전해야 관중 몰릴 것”**  

 <LG 박종훈 감독>

**“4강팀에 분명 넥센 있을 것”**  

 <넥센 김시진 감독>

**“더이상 내려갈 곳 없다”**  

 <한화 한대화 감독>

# 김연아 다시 ‘승부 속으로’

## 토리노 입성...세계선수권 2연패 도전

“부담은 없다. 하지만 승부의 긴장감은 계속된다”  
 ‘피겨여신’ 김연아(20·고려대)가 올 시즌 ‘마지막 승부’를 성공적으로 마치려 다시 팬광한 승부세계에 발을 디딘다.

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22~28일·이탈리아 토리노)를 시작으로 화려했던 이번 시즌을 마무리 짓는 김연아는 지난 21일(이하 한국 시각) 전지훈련지인 캐나다 토론토를 떠나 토리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인 사상 처음으로 피겨스케이팅 금메달을 따낸 기쁨도 잠시, 김연아는 짧은 한국 나들이를 마치고 곧장 전지훈련지인 캐나다 토론토로 돌아와 다시 마지막 대회를 준비해 왔다.

김연아는 “당장 성적 욕심은 없다. 결과에 대한 압박감 없이 편안히 연기하고 싶다”며 부담없이 즐기며 대회를 치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아사다 마오와 안도 미키, 스즈키 아키코(이상 일본), 카롤리나 코스트너(이탈리아)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밴쿠버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시 출전한다.

특히 아사다는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김연아의 역대 최고점 기록(228.56점)을 넘어 서겠다”고 선언하며 설욕을 버리고 있기 때문에 김연아로서는 원하던 원치 않던 이들과 경쟁을 펼쳐야 한다.

게다가 이번 대회에 도전하는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 역시 놓칠 수 없는 대기록이다. /연합뉴스

# 이호석·박승희 개인 종합우승

##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 남녀부

### 한국 금7 은6 동3 '세계 최강' 확인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 ‘만행’ 이호석(고양 시청)과 여자 대표팀 ‘막내’ 박승희(광문고)가 2010 세계빙상경기연맹(ISU)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 남녀부 개인종합 우승을 휩쓸었다.

이호석은 22일(한국시각) 새벽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막을 내린 대회 1000m 결승에서 1분34초198로 결승선을 통과해 당당히 금메달을 추가하며 종합점수 73점으로 중국의 에이스 왕린(88점)을 제치고 여자부 개인종합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대회 첫날 1500m에서 은메달을 따냈던 이호석은 1000m 우승에 이어 개인종합 순위를 결정하는 3000m 슈퍼파이널에 출전,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종합점수 86점

으로 막판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인 곽윤기(76점)를 제치고 개인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이호석은 지난해 대회에 이어 개인종합 2연패를 달성하면서 명실공히 세계 정상의 쇼트트랙 선수로 인정을 받게 됐다.

여자부에서는 박승희의 활약이 빛났다. 첫날 15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박승희는 500m와 1000m에서 아쉽게 메달 확보에 실패했지만 3000m 슈퍼파이널에서 5분04초070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당당히 금메달을 추가하며 종합점수 73점으로 중국의 에이스 왕린(88점)을 제치고 여자부 개인종합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남녀 대표팀을 통틀어 금메달 7개와 은메달 6개, 동메달 3개를 휩쓸면서 세계 최강 전력임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 한국 종합 18위...밴쿠버 패럴림픽 폐회

세계 44개국의 장애인 선수 503명이 열흘간 빙판과 설원을 열정으로 녹였던 2010 밴쿠버 동계 장애인올림픽이 22일(한국시각) 막을 내렸다.

한국은 휠체어컬링 대표팀이 열악한 환경을 딛고 금메달보다 값진 은메달을 따내면서 종합 18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당초 목표는 동메달 1개에 종합 22위로 형식적 목표는 초과 달성했지만 출전선수 규모를 고려할 때 아쉬웠다는 목소리가 선수단 안팎에서 나왔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 역대 최대규모인 선수 24명을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등 5개 전 종목에 파견했다.

휠체어컬링은 북유럽과 북아메리카 강국들을 연파하고 결승전에 올라 세계최강 캐나다와 접전을 벌인 끝에 한국의 사상 첫 동계 단채전 메달을 따냈다. 메달 색깔을 따지지 않고 갯수로만 순위를 매기는 대회 조직위원회 집계로는 러시아가 금메달 12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10개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 금메달이 많은 순으로 따지면 독일이 금메달 13개, 은메달 5개, 동메달 6개로 우승국이 되고 러시아가 2위로 밀렸다. /연합뉴스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재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할수있는 100% 완전방수!!

방수방수제는 재품을 하지 않습니다.

우성, 지아빌, 희백, 루차랑, 옥실 등 방수제 오너먼트

최신 4차원 방수분자 방수방수입니다

특히 방수하는 손목이나 발목부분은 방수 가능합니다

문의: 02-221-1111

**이타리 가쿠 50%**

오늘부터 이타리 가쿠 특수원 판매

2년만의 빅세일 3월 29일 까지

이타리 가쿠 50% 할인

이타리 가쿠 50% 할인

**CASATO**

이타리 가쿠 50% 할인

100% Made In Italy